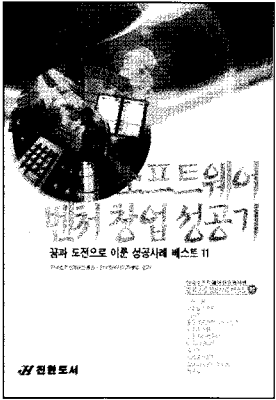


KCRC News

1 소프트웨어 벤처창업 성공기 발간



KCRC에서는 지난해 10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지원으로 '소프트웨어 벤처창업 성공기' 꿈과 도전으로 이룬 성공사례 베스트 11이라는 서적을 출간했다. 이 책은 국내 벤처기업 육성책 일환으로 벤처기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발간, 현재의 벤처시대를 이끄는 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환경에서 실제 벤처 창업을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책은 벤처기업으로 자리를 굳힌 11개 업체의 성공 사례를 있는 그대로 옮겨 실제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벤처 창업의 동기, 준비 과정, 아이템 설정, 자금 및 인력수급 등의 실사례와 함께 역경을 이겨 내면서 터득한 노하우가 책에 담겨 있다. 또한 이 책은 실제 정보통신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IT 관련 기자들이 직접 11개 업체를 방문해 취록함으로써 현장감을 살렸다.

KCRC에서 발간한 소프트웨어 벤처창업 성공기

2 이향선 회장, 소프트엑스포 99에서 정통부장관상 수상

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소프트웨어 전문 전시회 소프트엑스포 '99가 지난해 12월 9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1997년 첫 전시회가 선보인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된 소프트엑스포 행사장에는 정보통신산업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대변하듯 나흘간 연인원 85,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행사 관계자들은 집계했다.

이 행사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종합시상식. 첫날 열린 개막식에는 김대중 대통령, 남궁석 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보통신 관련 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뒤이어 종합시상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이종문 암베스벤처그룹 회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고, 안철수 바이러스연구소 소장과 김현진 현영시스템즈 사장이 산업포장을 받는 등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40명에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 등이 수여됐는데, 한국컴퓨터기자클럽의 이향선 회장은 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한 이향선 회장

3 1999 정보통신인의 밤, 성황리에 마쳐

한국컴퓨터기자클럽은 지난해 12월 10일 기자클럽 회원사인 36개 정보통신 분야의 매체 기자 및 100여 업체의 정보통신 관련 업체 관련자들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9 정보통신인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궁석 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 기자클럽의 발전에 대한 축사와 아울러 1999년 정보통신산업 분야에 공로가 큰 이에게 수여하는 공로상 및 올해의 기자상을 시상했다. 이 시상식에서 올해의 기자상으로는 PC 파워진의 김희균 기자가 수상했고, 올해의 공로상에는 한글과컴퓨터의 전하진 사장이 각각 수상했다. 올해의 기자상으로 선정된 김희균 기자는 모토롤라사의 해외연수와 아울러 데스크탑PC가 부상으로 수여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향선 회장은 이 자리에서 "1999년은 국내 정보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길을 걷는 한해였으며 새로운 천년에는 정보산업이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자클럽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의 기자상과 공로상 수상자들과 함께

안병엽 정통부장관 초청

기자간담회 개최



지난 5월 정통부장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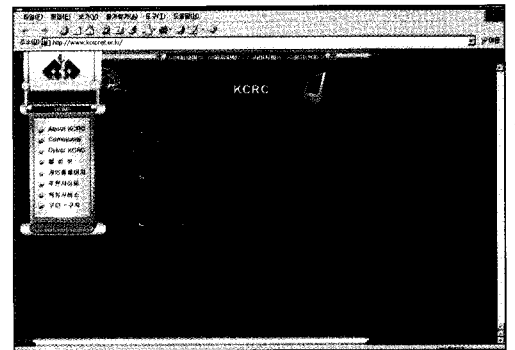
한국컴퓨터기자클럽은 지난 5월 9일 정통부 귀빈식당에서 안병엽 정통부장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20여개 IT 관련 매체 담당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기자간담회에서 안병엽 장관은 정부, 산업, 학계를 연계한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우선 국가적인 최고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IMT-2000 사업자 선정에 대해 “초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주파수 독점을 막기 위해 총량제에 대한 법률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라고 전했다. 안 장관은 또 “벤처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정보통신지원센터 아이파트를 미국 실리콘밸리에 개소함과 더불어 중국에 비즈니스 센터를 개설했으며, 이스라엘과도 기술협력 등을 협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KCRC 홈페이지 개설, 초읽기에 들어가

그동안 IT 매체들의 공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컴퓨터기자클럽이 기자들의 정보공유와 회원사 및 후원사간의 공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구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KCRC 홈페이지는 9월중 최종 선보일 예정이다.

KCRC 홈페이지의 주소는 <http://www.kcrcnet.or.kr>이다. 이 홈페이지 제작에는 데이콤에서 PC 서버 1대 및 코로케이션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



KCRC의 홈페이지 화면

2000년 사업, 이렇게 펼쳐간다

한국컴퓨터기자클럽의 2000년 사업방향은 정보산업이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40개의 정보통신분야의 매체와 정보통신 관련 IT 업계가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간 진행된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기자 간담회를 가졌으며 7월 7일부터 8일까지 양평 대명콘도에서 2000년 하계 투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기자 협회보인 KCRC 2000년 여름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협회보는 기존의 형식에서 탈피하고 각 회원사들이 대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하여 공감대를 넓혔다. 그 외에 회원들과 IT관련자들과 공감 및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구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기자의 활동에 역점을 두기 위해 회원사를 세분화하여 각 매체의 분야별, 산업군별로 기자군을 분류, 기자의 전문화를 꾀하는 동시에 각 업체와 연계한 전문 분야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IT분야의 마케팅 담당자와 기자들의 정보 교환을 위해 좌담회 및 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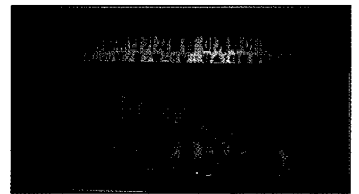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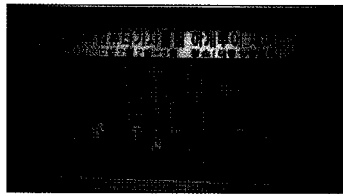
KCRC News

사상 최대의 인원...

2000년 KCRC하게 투어세미나

"열광의 도가니"

김완선 / KCRC 부회장



"이번 행사를 정말 훌륭하게 잘 치르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도 KCRC 투어세미나와 같은 멋진 행사를 치르고 싶습니다."

-링크인터내셔널 이재철 과장

"행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즐거웠던 주말 보낸 것 같습니다. 마치 대학교 신입생때 MT 간 기분이더군요... 오랫동안 느껴보는 그런 느낌...^^"

-한국유니시스 홍보팀 정성열

"그 어느 때보다 멋진 투어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후회 투어세미나가 기다려지는군요."

-KPR 홍용기 부장

지난 7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동안 양평 대명콘도에서 열렸던 KCRC 하계투어세미나. 앞서 감흥(?)을 밝힌 몇 사람의 의견을 굳이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이번 투어세미나는 'KCRC사상 최대의 행사'였다는 게 당시 참석했던 이들의 전반적인 평가다(너무 심한 과찬인가?).

참석한 인원이 어림잡아 200여명에 이르고 27개 매체와 30여개 후원사에서 대량의 인원이 투입된 이번 행사는 다른 어느 때 행사와는 다르게 기획됐다. 우선 장소 선정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였다. 지난해 투어세미나때 연수원이라는 장소상의 제약때문에 발걸음조차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최대한 자유스러운 일반 콘도로 장소를 잡은 것이 첫번째 기획의도였다.

두번째는 기존까지 전통적으로 되풀이되어 왔던 세미나를 과감히 폐지한 점이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다. 오후 점심먹자마자 시작된 구태의연한 세미나는 기자들의 졸음을 불러왔고, 그나마 선발대를 택했던 머리 큰 기자들의 경우는 세미나를 피해 매점 등에 쫓박혀 '땡땡이' 치는 것이 관례였다. 또한 일부 매체의 경우는 세미나를 피하기 위해 단체로 저녁먹을 즈음에나 후발대로 도착하는 진풍경이 벌어지지 않았던가.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이번 하계 투어세미나는 순수한 레크레이션과 스포츠 활동으로 대체했다(이쯤에서 박수, 짹짹!!!).

가장 먼저 열렸던 볼링대회. 주최측의 실수아닌 실수로 대진표에 착오가 생겨 결승에서나 만나야 될 팀들이 예선전에 맞붙기도 했고, 높은 점수를 올리고도 예선전에서 떨어진 팀이 준결승까지 진출하는 기현상도 벌어졌다. 결국 뛰어난 공굴리기 기술과 물집이 잡혔음에도 손가락의 내공을 보여준 다우기술팀이 우승을 차지, 거금의 상금을 거머쥐었다.

두번째 경기는 농구 자유투 대결. 당일 날씨는 태양별에 피부가 금방이라도 익을 듯했지만 모두들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다. 애초 농구와 족구를 함께 하자는 의견이 팽배했지만 시간과 장소 관계상 단체 경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개인전에 한정시켰다.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경기는 보는듯 미는듯 명함 돌리기에 여념이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다(여러분, 다음에는 이리저리 담시다).

이번 투어세미나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해도 저녁식사후 열린 레크레이션. 저녁식사를 마치고 난 후 열린 행사라 바베큐의 상당 부분이 남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레크레이션을 즐기느라 먹지 못했을 것이라고 자체 분석을 내렸다. 레크레이션 강사의 뛰어난 언변술과 지도력 덕분에 4개팀으로 나뉜 200여명은 두시간이 넘도록 광란의 밤을 보냈다. KCRC기자들과 후원사 관계자들이 한몸(?)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고 대명콘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와보니 한가지 더 놀랄만한 사실은 밤새 아무 불상사없이 조용한 아침을 맞이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KCRC투어세미나에서는 고성방가나 음주기무,폭력사태 등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예외였다. 다만 한 업체 담당자가 자정 가까운 시각에 양주 6병을 사들고 총알택시를 타고 왔지만 먹성좋은 한 매체(어디라고 밝히진 않겠다)의 기자들이 독식하는 바람에 다음 날 아침 단체로 출혈된 눈을 보이기도 했다. 행사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인내력을 발휘해준 여러 매체 및 업체 담당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KCRC